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2017 여름호
www.jungtoh.org

정토마을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행사일정

2017. 8. ~ 2017. 10.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 제 4차 법화경 독송 천일기도 : 매주 넷째주 일요일 마다
- 부탄성지순례 및 인도부다가야 불가촉천민(3,000명) 대상으로 의료봉사
 - 부탄성지순례팀 : 11월 24일 출발 ~ 12월 3일 도착
 - 의료봉사팀 : 11월 27일 출발 ~ 12월 4일 도착
- 진신사리 봉안 : 1,000일 기도중 6차 100일 기도(2017년 7월 30일 ~ 11월 5일)
- 법화경독송 21일 장좌기도 : 입재(2018년 2월 10일) ~ 회향(2018년 3월 2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 생명교육 전문가과정 신입생모집 : ~ 8/25
- 석사과정(명상심리학전공) 가을학기 개강 : 9/1
- 생명교육 전문가과정 가을학기 개강 : 9/2
- 파랑지역아동센터 명상수업 : 9/22, 9/29, 10/19

마하보디교육원

- Soul Mother 프로그램 : 8/15, 9/3, 10/9
- 45기 생사의 장 : 7/30 ~ 8/5
- 임상기도, 임종의식 집중수련(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 10/22 ~ 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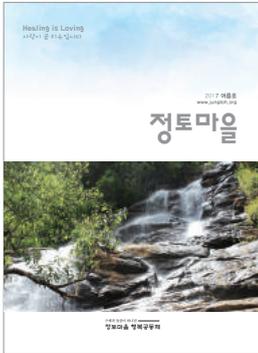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 8회 호스피스 세미나 : 10/14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 매월 환우 생신잔치

발행처 (재)정토사관자재회 **발행일** 2017년 8월 3일 **발행** 편집인_능행 등록_울산바01004(2008.4.11) **편집위원** 장광대 김현아 김국제
사진 편집부 **정토마을(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052-255-8588) **정토마을(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
 원면 미원초정로 856-19(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052-255-8520)
디자인.편집 이노디자인(02-834-2213~4) **제작** (재)정토사관자재회 | 비매품



2017 여름호(통권 112호)

목 차

01	여는 글	4
02	명상카툰	6
03	의학상식	7
04	병원 둘러보기	10
05	힐링푸드 레시피	14
06	교육후기	16
07	화공법회	20
08	제4차 법화경 천일기도	21
09	법화경강설	22
10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26
11	환자가족 이야기	29
12	의료봉사 및 성지순례 안내	30
13	청주 정토마을 이야기	31
14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32
15	후원감사	34
16	정토마을 소식	37
17	광고	41



팔월의 노래

무척이나 무더운 팔월
녹음이 짙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숲마저도 지쳐버리는 날들
이른 봄부터 여기 8월까지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어디서 삶을 살아냈을까 싶다.
기억 속에는 그저 분주한 가운데 소소한 일들이 많았다는
느낌밖에는....
피는 꽃은 지는 꽃을 만나고
피는 잎은 영그는 열매를 만나고
태어난 인생은 떠나가는 인생을 만나고...
가는 것이 오는 것이며
오는 것이 가는 것인 줄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배움을 준다.

작열하는 8월 태양 아래서....
붉은 봉숭아 산나리 초롱꽃 들 자재병원 뜰 풀 속에는 숨어 피고
그리움이 영근 해바라기는 수줍게 고개 숙이며 익어가고
배롱나무 꽃빛은 고추잠자리를 유혹하고
들판에 나락들은 농부들의 땀을 먹어가며 익어가는 대자연의
품속에서 정토마을과 함께 호흡하는 많은 이들의 꿈도
연꽃처럼 피고 있다.





10년 만에 지난 2월에 인도 보드가야에 갔다.

10년 전에는 보드가야 대탑에서 오직 자재병원 건립성취를 위한 기도에 전념하다 왔었는데 올 2월에는 대탑보다는 그 탑 주변이 온통 고통의 질곡으로 다가왔다.

수없이 많은 장애자와 환우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성스러운 성지, 그 곳에 모여든 중생들의 척박한 폐허 같은 삶들이 나의 눈 속에 담겨졌다.

석가세존께서 21세기에 다시 오셨다면 그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중생을 구호하고 구제할까 생각했고, 나는 금세 참회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부처님, 정토마을의 힘이 매우 작지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토마을과 함께 하는 이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통에 눈과 귀를 열고 가슴을 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여 마치고 돌아왔다.

나는 서둘러 인도, 보드가야 그곳으로 많은 이들과 함께 약을 들고 가기 위하여 준비 중이다.

11월 27일 우리는 간다. 인도 보드가야로....

누군가가 질병의 고통에 헤매지 않는 세상

누군가가 허기와 배고픔에 방치되지 않는 세상

누군가가 생명유지에 위협을 받지 않는 세상

붓다께서 꿈꾸시던 세상이다.

그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교인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하며, 무더운 여름날 정토마을 가족 모두 자신의 건강도 잘 살피고 주변에도 관심을 갖는 천수 천안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기를 기원드린다.

일체 중생들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작열하는 8월의 태양 아래서 **능행 합장**

마음의 짐을
시원한 물속에
녹여 버리니
행복합니다.



심연 용정운 | 불교일러스트레이터, 카툰니스트

2012년 불교언론문화특별상 수상,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으로 2011년 올해의 불서 우수상 수상.
회향 : www.zentoon.com / 이미지보리 : www.ingebori.com

難治난치 질환과 攝生섭생

|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한방부장 김영찬

질병의 치료 특히 난치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생활 속 섭생의 중요성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간략히 설명하고 한 번 더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난치 질환의 성격

일단 난치질환의 성격을 특징해 보자면,

난치 질환이라 함은 전문적 의료의 영역에서, 병태가 一進一退일진일퇴의 慢性만성적 경향성을 보이고, 치료에 確定확정성이 부족하고 效率효율도 높지 않음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도 난치질환의 치료법이나 치료율의 양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난치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 자르듯 간명치는 않겠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꼽는다면, 그것은 난치질환이 생활 攝生섭생의 영역과 가장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즉, 난치성 질환들은, 일상에서의 생활 태도 습관 등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배태되어 오다가 현재에 이르러 질병으로 발현된 일종의 생활 習慣습관병이기 때문에, 그 치료법 역시 생활 속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교정되고 해소되어야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 의료 공학적 접근만으로는 치료 한계가 있거나 치료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인 것이지요.

자연의 물리법칙에, '없던 것이 있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시 그것이 없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 만큼이

다' 라는 有無유무의 同一동일 時間律시간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난치질환의 주요한 특징 요소 중의 하나가 病期병기가 慢性만성적이라는데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오래 전에 胚胎배태되고 오랫동안 형성되고 固着고착화되어, 되돌리기에 오래 걸리는 그런 특징 말입니다. 질병의 치료 경과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 병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경과도 오래였기 때문임은 명백합니다. 急하게 빠르게의 急性병에 비해, 慢하게 느리게의 慢性병의 특징이 그런 것이지요.

자, 그럼 그러한 시간 속에서, 어떤 요소가 어떤 생활 습관이 질병을 誘發유발하게 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난치 질환의 유인誘因

몸 밖에서, 몸에 영향을 미쳐, 몸 안의 生理생리·病理병리적 機能기능·器質기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환경적 상황 要因요인을, 질병의 유발 요인 즉 誘因유인이라 합니다.

유인은, 크게 先天선천적 영역과 後天후천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 영역은, 다시 인간 일반의 性別성별 年齡연령과 각 개인의 體質체질로 나누고, 이 부분은, 내가 自由意志자유의로 임의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합니다.

후천적 영역은, 후천적으로 주어진 환경적 요인으로서, 그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의지로 존재하는, 각각의 個人的개인적 책임의 영역입니다.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 후천적 영역을 도표로 세분해 보면,

後天후천	外感외감	淫感음감	風풍 寒한 暑서 濕습 燥조 火화 淫음의 六淫육음의 時節시절에 맞지 않는 혹은 지나친 氣候기후의 感觸감촉
		異感이감	蟲충 菌균 疫역의 다른 微小미소생물에 感染감염
		毒感독감	有機유기 無機무기물에 의한 汚染오염
		損感손감	打撲타박상 捻挫염좌상 火傷상 冬동상 각종 外외상에 의한 損傷손상
	內傷내상	食傷식상	過과식 不規則불규칙식등 올바르지 않은 음식 습관에 의한 飮食음식상
		情傷정상	각종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한 喜희 怒노 憂우 思사 悲비 驚경 恐공의 七情칠정에 의한 感情감정상
		勞傷노상	일상 업무의 과다, 지나치게 과도한 운동 무절제한 房勞방노등에 의한 勞力노력상, 일상의 지나친 게으름, 운동부족 등의 勞逸노일상
	亂傷난상	食傷식상 情傷정상 勞傷노상 이외의, 기타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의 규칙성 배변의 규칙성 등, 생활상 있어서의 亂調난조상	

난치 질환의 치료

易治이치든 難治난치든, 질병은 기본적으로 위의 誘因유인적 요소의 기반위에서 서서히 인체에 배태 심화 됩니다.

난치 질환은 이 유인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병 인자로 작용하였던 바의 個人개인의 歷史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난치질환의 치료는, 위의 도표의 해당사항을 잘 숙지하여 일상에서 그러한 각각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日常일상적으로 부단히 노력하는 일, 즉 발병의 근거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난치 질환의 치료기간은 一年일년이 기본입니다. 農事농사짓듯 보내는 시간의 일 년.

대자연의 못 生命생명들이 스스로를 成長성장시키거나 回復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해.

농사가 時間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병이 여물어졌던 시간만큼 풀어지는 治癒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젊은 시절에 건강할 때 관리하고, 노년에 건강을 수확하게 되는..

東洋醫學(동양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원리가 비록 복잡하기는 하지만,

‘正氣存內 邪不可干(정기존내 사불가간) 邪氣所湊 其氣必虛(사기소주 기기필허)’ 로 요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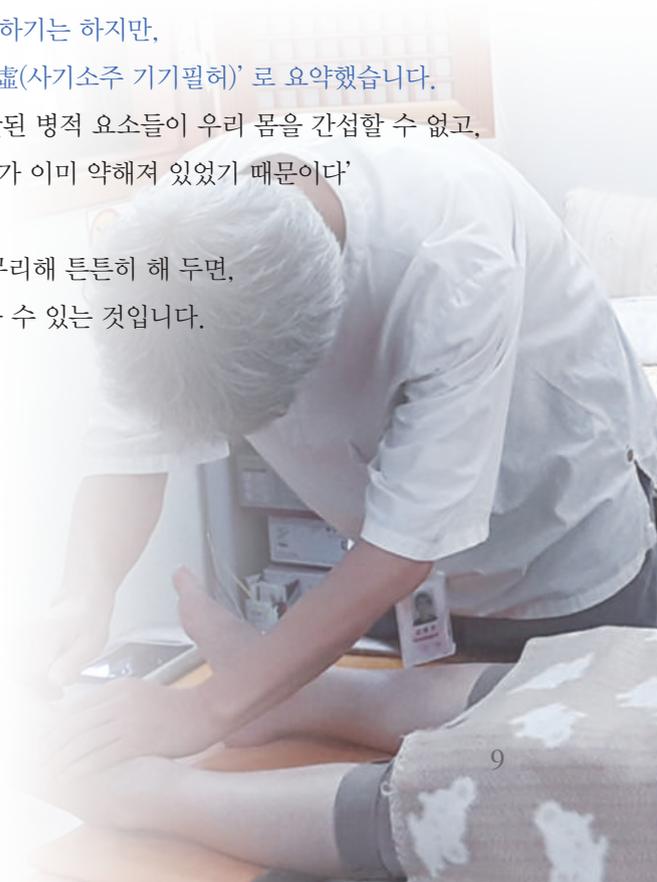
‘우리 몸의 올바른 正氣정기가 확립되어 존재하면, 나쁜 사된 병적 요소들이 우리 몸을 간섭할 수 없고, 나쁜 기운의 邪氣사기가 깃들어 머무는 것은, 반드시 정기가 이미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攝生섭생으로 平素평소에 인체의 正氣정기를 잘 갈무리해 튼튼히 해 두면,

질병이 胚胎배태될 기본 바탕이 없어서, 臥病와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질병과의 투쟁 그 萬難만난의 역사에서,

동양의 醫家의가들이 定礎정초한, 간략한 결론입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Healing is Loving



현대 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고 생명존중, 영적치유에 가치를 두어 붓다의 무한한 자비를 바탕으로 조건 없는 나눔! 실천하는 의료 기관 불교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입니다.

간호스테이션



1인실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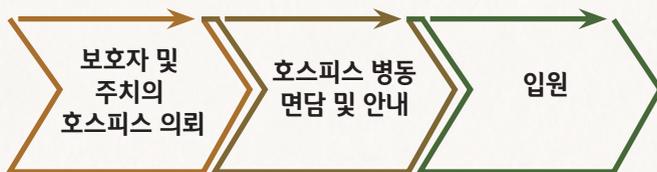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운영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 입원 대상자

입원대상자는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로서

- 현대의학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말기환자
- 암성통증 및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 주치의나 호스피스 담당자가 호스피스 진료를 추천하는 환자

입원시 필요한 절차



입원시 필요한 서류

- 진단서(조직검사포함)
- 의무기록사본
- 최근 CT or MRI 사진 사본

정상적인 신체적 증상과 대처방법

■ 차가워짐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손, 발, 팔, 다리, 몸의 중요한부분 순으로 싸늘해지고 피부색이 하얗거나 파랗게 변합니다. 담요를 덮어주는 것은 괜찮으나 전열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면

환자는 점점 잠자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환자가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인과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합니다.

■ 혼동하는 것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해서 혼동을 하게됩니다. 이때는 내가 누구인지 이름을 알려주거나 '지금은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등 상황을 설명해주고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 실금 또는 실변

환자의 근육이 무력해져서 대소변 조절을 못 합니다. 기저귀를 채우거나 침상에 흡이불 등을 깔아줍니다. 침상을 청결하고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 **울혈**

가슴에서 돌 구르는 소리가 나는데, 분비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나는 소리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줍니다.

■ **불안정함**

불안정하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 편안한 음악이나 책 읽기 등이 도움됩니다.

■ **수분과 음식 섭취량의 감소**

몸의 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필요량이 감소됩니다.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 **소변량 감소**

섭취량이 감소되면서 소변량도 자연히 감소합니다.

■ **호흡양상의 변화**

중간 중간 무호흡이 동반되는 호흡양상이 발생하는데, 머리를 높여주고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편안하게 해줍니다.

정상적인 정서적, 정신적 영적 증상과 대처방법

■ **위축**

반응이 없어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게 됩니다. 환자는 마지막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은 정상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말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환자가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 **“환상”과 같은 경험**

환자는 이미 죽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실제로 없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고 전환되려고 준비되는 중입니다. 그런 것은 정상이라고 설명해줍니다.

■ **안절부절 못함**

환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때는 환자가 평소에 즐겼던 장소, 좋았던 경험을 상기시켜주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종교행위를 하게 해줍니다.

■ **대인관계 감소**

환자는 몇 사람 혹은 단 한사람과 있으려고 합니다.

■ **환자의 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고, 당신 자신의 요구를 이루려고 환자를 죽지 못하게 하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죽어가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언제라도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 인사**

환자가 떠날 준비가 되었고 가족이 환자를 보낼 수 있으면 이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환자를 고티껴안아 주거나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면서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해줍니다. ‘당신을 사랑해’, ‘내가 잘못했던 일이나 불편하게 해주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요’, ‘~에 대해서 감사해요.’ 등의 작별 인사를 나눈다. 나중에 “왜 내가 그때 그런말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름 대표
보양음식

삼계탕

|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영양실장 정길영

예로부터 무더운 여름을 거뜰히 나기 위해 먹던 삼계탕!
이제 사시사철 즐겨 먹는 별미 보양식이 되었네요.

땀을 흘려 기운이 없을 때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그리고 병후 몸이 쇠약해졌을 때도 계절에 맞는 보양 재료를 더해 삼계탕을 끓여 먹으면 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요.

그럼 이 삼계탕은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언제부터 삼계탕을 먹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고려 시대 때 원기회복 음식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초기 철기시대 이후 닭을 식용으로 사용해왔으며, 백제시대에 들어와 인삼을 일본에 수출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전부터 닭과 인삼으로 만든 요리가 있었으리라 추측이 되네요. 1670년 발간된 국내 첫 한글 고조리서인 <음식디미방>에는 연계찜(영계찜)과 수중계(닭찜) 조리법이 나와 있구요. 1942년 발간된 조리서인 <조선요리제법>에 소개된 백숙 조리법은 지금의 삼계탕과 거의 비슷하답니다. 이렇게 삼계탕은 오랜 세월을 지나며 명칭이 조금씩 변형되었지만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약식동원사상 즉 좋은 음식은 약과 같다는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음식이죠^^

그럼 삼계탕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삼계탕은 약병아리에 인삼, 황기, 대추, 찹쌀 등을 넣고 푹 고아서 만든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보고인 닭고기와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인삼까지 만나 환상의 맛을 내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삼계탕은 무더운 복날에 먹는 건강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름철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체력소모가 많아지게 되죠. 한의학에서는 땀을 많이 흘린다는 것 자체를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보는데요, 이때 빠져나간 기운을 살리기 위해 뜨거운 기운을 가진 닭과 인삼을 넣은 삼계탕을 먹으므로 냉한 속을 따뜻하게 데워 주고, 위장기능이 살아나게 해 소화흡수를 잘 되게 도와주죠. 성질이 따뜻한 닭과 함께 인삼, 황기, 마늘 등을 넣어 위장을 보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체내의 부족한 기운과 잃었던 입맛을 돋워주는 명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양식이라고 명할 수 있겠네요^^



이 삼계탕을 한번 만들까요?

무엇을 넣고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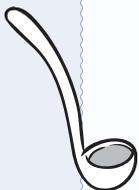
영계(400g넘지 않는), 찹쌀, 대추, 황기, 마늘, 인삼

어떻게 만들면 되죠?

- ① 찹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둔다.
- ② 닭의 공지 부분은 기름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잘라 내고
- ③ 찹쌀, 대추, 마늘을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닭에 넣어준다.
- ④ 닭과 함께 넣고 싶은 한약재를 넣고 꼭~ 끓여준다.
- ⑤ 맛있게 먹는다^^

어때요? 너무 쉽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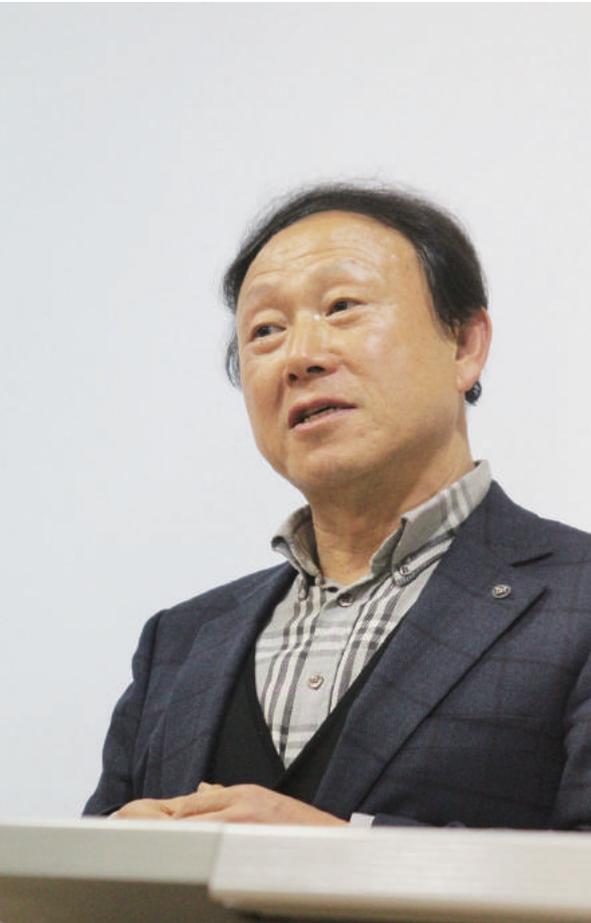
이 기본 삼계탕에서 **진보**를 넣어 **진보삼계탕**을
해물을 넣어 **해물삼계탕**을
 고소한 맛을 원하신다면 **누룽지**를 넣어 **누룽지삼계탕**을
 건강과 고소함을 원하시면 **들깨**를 듬뿍 넣어 **들깨삼계탕**을
 닭냄새도 잡고 감칠맛을 원하신다면 **된장**삼계탕을
 느끼함을 잡고 독특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감자**삼계탕을....



기호에 따라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어 다양하고 맛있는 삼계탕으로
올 여름 건강을 지켜 보시는게 어떨까요?~^^~

생명교육 전문가과정 1학기를 마치며...

|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생명교육 전문가과정 3학기 재학생 김원식



오늘날 사람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삶의 속도에 간혀 차한 잔의 여유마저 갖지를 못하고 부자유하고, 산만하고, 부자연스럽고,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반대편에서 최선을 다해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험로에서 우리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예리한 직관으로 삶의 질적 향상과 행복에 이르는 궁극의 길을 생명교육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해 주었고, 저는 이번 계기로 인하여 배움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증진해 나가면서 밀고 당기는 견인역할을 해 나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대학원을 중심으로 모든 인적 물적 구성요소가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등대 불 밝혀 지역사회를 비추주고, 그 빛이 확대되어 나라전체로, 세계화로 넓어지고 실행되어지기를 말입니다. 그 속에 저 자신 또한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

입학 할 때의 마음을 돌이켜 보니, 학교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학교가 중심이 된 TF팀이 운영

되어 지역사회에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일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한 실천여지가 어렵게 보이기도 해서 과연 공부를 이어가야 하는지를 되물어 보게도 되었습니다.

3학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입학지원서에 적었던 내용을 다시 꺼내어 나누어 봅니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이라고 합니다. 물질과 정신의 불균형에서 오는 결과로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여 끝내는 죽음을 선택하는 극단에 이르게 됩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미국 또한 정신적인 빈곤을 스스로 알고 동양의 명상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도구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명상을 일반 생활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 할 수 있게 연구 개발 체계화 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1. 스트레스 완화(집단/개인) > 도시인 습득용이 명상기법 창안
2. 소모임 명상처 만들기(행복한 마을 만들기)
3. 임상 상담 system & 지원 source 개발 적용 상담 활용

학기동안 지도하신 교수님들께 감사올리고 곁에서 교무지원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그리고 저의 자존감을 평정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학습동지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꽃비



| 44기 생사의 장 교육수료생 정승혜

봄이 왔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거짓말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온기와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준다. 그런데 이맘때면 나는 한바탕 큰 충격이 슬고 간 기억에 마음이 우리하다.

2년 전 봄이었다. 친정엄마가 기침이 잦다 싶더니, 폐렴으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런데 입원한지 열흘이 되어도 차도가 있기는커녕, 장염 증세까지 보이셨다. 담당의사는 일반적인 폐렴이 아닌 것 같이라며, 더 이상 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엄마는 응급차로 서울의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셨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엄마 몸은 점점 악화되었고, 급기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때 일을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 핑 돈다. 우리는 하루에 두 차례 30분간 엄마를 면회할 수 있었다. 엄마는 기도로 관을 끼워 넣은 상태라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깔끔하고 자존심이 강한 엄마는 그렇게 생판 처음 보는 의료진들에게 당신 몸을 고스란히 내맡겨야 하셨다. 극심한 통증과 강한 약으로 정신은 혼미했고, 간간히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옆에 있던 환자가 죽어 나갔다.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지만, 저기 입구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와 있다고도 하시고, 손에 주사바늘을 주렁주렁 매단 채, 힘겹게 당신 마음을 글로 옮겼을 때, 그 고운 엄마가 '지옥' 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난 더 살고 싶지 않다고, 나를 그만 고통스럽게 하라고, 나는 살 만큼 살았다고, 그때 엄마는 살 이유를 찾지 못하셨고, 살 의지도 놓으셨다.

수술을 원하는 의사의 전문적인 설명에 이렇게 갑자기 엄마와 이별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동의 사인을 했다. 그리고 엄마를 담당한 의료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 엄마는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구나. 이걸 아닌데! 정말 중요한 일인데, 뭔가 아주 잘못되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 자신이 관리할 수 없는 건가? 죽음이 닥친 이 순간 스스로 아무 의사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어이없이 생을 마감해도 되는 건가?

정말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일주일 뒤 엄마는 기적적으로 회생하셨다. 엄마는 신기하게도 중환자실에서의 지옥 같은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셨다. 한 달 후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셨을 때, 나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맞이할 죽음에 대해 알고 대비해야한다' 는 숙제를 받은 느낌이였다. 죽음에 대해 무관심했던 자신이 참 한심하기도 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거늘, 그동안 어쩌면 그렇게 그 중요한 문제를 밀쳐내기만 했을까?

나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환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죽음을 맞이하길 원한다. 생이 끝나는 날이 다가올 때, 차근차근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담담하게 깨어서 죽음의 과정을 맞이하면 좋겠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꽃길을 걷는다. 바람이 불어오니 온천지에 꽃비가 내린다. 봄날 대낮에 어지러이 훑날리는 꽃잎에 취한다. 봄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본다. 꽃은 이렇게 짧은 삶을 마쳤다. 마지막 가는 길 온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안타깝고 행복하다. 이런 아름다운 죽음도 있구나. 우리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화공법회에 사용되는 13가지 곡물

공덕의 향

네충신탁 화공법회

2017년 4월 8일~9일 톱뎀우뎀스님을 모시고 약사여래가피기도(무장애 풀바가피) 화공의식을 통하여 일체 병고액난과 업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치유와 예방을 기원하고 악업을 소멸하여 보리심을 증장케하며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화공의식은 13가지 재료를 합하여 부처님께 공양한 후 의식에 맞추어 불의 신에게 올려 태우면서 그 연기로써 시방법계에 공양하는 의식입니다. 13가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는 위엄, 기름은 부(富), 검정깨는 선업(善業), 보리(쓰와)는 농작물, 밥은 음식의 품족, 마디풀은 수명, 과일은 자손, 풀마는 지혜, 길상초는 자제력, 보리쌀은 내적인 힘, 밀은 고난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콩은 몸의 힘, 조는 행복의 영원함입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참석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청하고 공덕을 짓는 인연이 되었으며 화공의식 당일에는 후원자와 함께 하여 환희로운 법회가 되었습니다.



불에 곡물을 태워 천신에 연기로 공양

정토마을 제4차 법화경 천일기도

「정토마을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건립」

입제일 : 2017년 2월 26일(음력 2월 초하루)

기도 주제 : 법화경 독송(제불보사님 가피기도)

기도방법

(1)매일 : 가정에서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사경합니다.

(2)매월 4주 일요일 : 언양 정토마을 대법당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집전 : 티베트 스님들과 정토마을 대중스님 합동기도.

기도진행프로그램

병고액난과 액난소멸을 위한 티베트 밀교의식.

법화경.(여래수량품, 약초유류, 관세음보살 보문품)

매월 4번째 주 일요일 대중기도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불보살님께 공양. 영가를 위한 제사의식.)

천일기도 동참금 : 매월 3만원 36개월 분납(자동이체)

설판 초대 : 개인, 단체접수.



묘법연화경 제1권

第三. 비유품

서봉반산(瑞峰盤山)
스님

제3 비유품

첫째 주제. 중생이 알아들을 때까지

1) 종종 인연과 갖가지 비유, 수없는 방편으로

이제 법화경의 설법양식에 대해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경전에서는 1불승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법으로 말씀하고, 그 법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그와 비슷한 사례를 들어 과거의 인연을 말씀합니다.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이런 방식을 삼주설법三周說法이라 부릅니다. 이를테면 (1) 법설주法說周 (2) 비설주譬說周 (3) 인연설주因緣說周가 그것이니, 지금까지 방편품에서 말한 내용을 원론적인 것을 법설(法說)이라고 하고, 제3 비유품 아래에서 비유설법을, 제7 화성유품化城喻品 아래에서 인연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앞의 방편품에서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인연 곧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라고 기조연설처럼 말씀하였고, 비유품 아래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비유설법이 시작되는 것이니, 그래서 법화경을 비유의 경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 중에서도 ① 불난 집의 비유(火宅喻, 제3 비유품)가 가장 어렵고, ② 거지아들의 비유(窮子喻, 제4 신해품) ③ 약초의 비유(藥草喻, 제5 약초유품) ④ 화현으로 만든 성의 비유(化城喻, 제7 화성유품) ⑤ 옷 속 구슬의 비유(繫珠喻, 제8 오백제자수기품) ⑥ 왕의 상투 속 구슬의 비유(王髻喻, 제14 안락행품) ⑦ 의사의 비유(醫師喻, 제16 여래수량품)가 차례로 설해됩니다.

‘대승불교 선언서’라 일컫는 경전인 법화경에서는 소승 수행자도 1불승을 바로 알고 마음을 돌이키면 얼마든지 성불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승의 자비정신을 활성화하고, 사바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을 믿으면 모두 성불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비유들은 대승의 정신을 정착시키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에게 가장 큰 희망을 안겨주려 한 것입니다.

2) 불자는 부처님 입에서 나오며 불법에서 태어난다

법화경에서는 다른 경전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수기 내리기에 앞서 제자들의 신앙고백이 펼쳐짐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수기를 받을 사리불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1.

“세존이시여, 제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항상 스스로 책망하였더니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던 미증유未曾有의 법문을 듣고, 모든 의혹을 끊고는 몸과 마음이 태연하여 쾌히 안온함 얻어서, 오늘에야 비로소 참된 부처님 이니 부처님 입으로부터 나며 불법으로부터 변화되어 나서 불법의 부분을 얻은 줄

알겠나이다.”[— 今日에서 乃知眞是佛子라 從佛口生하며 從法化生하야 得佛法分호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런 신앙고백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자佛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귀의 하였고, 법을 따라서 화생하였다[從佛口生 從法化生]」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앞의 방편품에서 천명하였듯이 「3승 이 방편인 줄 깨닫고 1불승의 진실법을 믿고 받드는 이는 모두 성불하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불교에서 불자라는 말은 참으로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것으로 인해 ‘부처님 아들, 불교를 믿는 신자, 1불승으로 귀의한 제자’ 등으로 폭넓게 쓰여지게 됩니다.

둘째 주제. 모든 불자는 반드시 모두 성불한다.

1) 사리불의 신앙고백- 사리불존자, 가장 먼저 수기受記를 받다

3-2.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숲 속이나 나무 밑에서 홀로 앉기도 하고 또는 거닐기도 하면서 매양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함께 들었는데 어찌하여 아래께서는 소송법으로 제도하려고 하시는가,」하였더니, 이것은 저희들의 허물일 뿐 세존의 잘못은 아니었나이다. —”

3-3.

삿된 소견 잘못 들어 바라문이 되었던니
세존께서 내 맘 알고 열반법을 말씀커늘
我本著邪見하야 爲諸梵志師로니 世尊知我心하시고 拔邪說涅槃이어서늘

3-4.

나쁜 견해 다 버리고 빈 법[空法]을 증득하여
그 때 내가 생각키를 열반 이제 얻었노라.
그러나 알고 보니 참 멀도가 아니로다.
我悉除邪見하야 於空法得證코는 爾時心自謂 得至於滅度러니
而今乃自覺 非是實滅度니다

지혜제일 사리불이 법화회상에서 가장 먼저 수기를 받기 전에 소송법을 뉘우치고 대승법에 귀의했음을 확실히 밝힌 부분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불자들도 올바른 신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현재 올바른 법에 귀의하고 있는지 신앙고백을 통해 점검 받고 불자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2) 사리불은 화광華光여래가 되리라

3-5.

“사리불아, 네가 미래 세상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겁을 지나면서 여러 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받들어 지내 보살의 행할 바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이 화광華光여래 · 응공 · 장번지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세계의 이름은 이구離垢이니,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며 깨끗하고 장엄하며 태평하고 풍성하며, 천인과 사람들이 치성하며, 유리로 땅이 되고 8방으로 뻗어나간 길은 황금으로 줄을 꼬아 드리웠으며, 그 길옆에는 7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 항상 꽃과 열매가 무성하며, 화광여래도 또한 3승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리라.”

위의 장면은 바로 ‘법화경 수기’의 시작입니다. 세존의 가장 뛰어난 제자인 사리불에게 제일 먼저 수기를 내리시고, 이어서 4대제자인 마하가섭, 수보리, 가전연, 목건련 등 십대제자十弟子를 비롯하여 제바달다와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자에게 수기를 내리신 것입니다1). 그런데 여기서 화광여래가 교화하는 세상은 ‘보살로 보배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화광여래의 세상에는 사바세계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물 대신에 수많은 보살이 가득한 기쁨과 행복의 세상이 되리라는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 5백제자수기품 제8과 수학무학인기품 제9에서 5백 제자와 2천인 등 무수한 사람들이 수기 받고, 다시 제바달다품 제 12에 이르면 악인 제바달다提婆達多와 권지품勸持品 제13에서 마하파사파제비구니에게도 수기내리고 있다.

셋째 주제. 법화경은 신앙고백의 경전

1) 법화경은 신앙고백의 경전 - 혹시 마군魔群이 부처님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법화경에는 군데군데 제자들의 신앙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3-6.

처음 부처님 말씀을 듣고 初聞佛所說하고 心中大驚疑호대
마음에 크게 놀라고 의심하되,
혹시 마군이 부처님의 모습이 되어 將非魔作佛하야 惱亂我心耶하더니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가 했더니.

3-7.

부처님이 갖가지 인연과 佛以種種緣과 譬喻巧言說하시니
비유로 잘 말씀해 주시니
그 마음 편안하기 바다와 같아 其心安如海라 我聞疑網斷호이다
제가 듣고 의심그물 끊었나이다.

본인이 3승일 적에는 벌써 아라한이 되어 성불했다고 좋아했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어 한량이 없으며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거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마왕이 부처님 모습으로 나투어 나를 비롯한 모든 대중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었다는 사리불 존자의 고백은 참으로 솔직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 스스로 어찌하여 속았던가?」 하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문대중 가운데 믿음이 뛰어나고 참고 기다리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알아들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1,200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불교 역사상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제자들이 소승에서 대승으로 재발심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무착無着보살과 세친世親보살의 사례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먼저 귀의해서 기도성취를 했다거나 경전사경, 참선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할 것입니다.

2) 성문제자도 수기 받을 수 있다

사리불舍利弗은 본래 마가다국의 라자그리하[王舍城]에서 가까운 나라카 마을의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어느 날 절친한 친구인 목건련目建連과 함께 축제 행렬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화려한 축제도 얼마 안가서 사라지고 말텐데, 백 년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영원하고 참된 해탈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결론에 이른 두 사람은 회의론자懷疑論者인 산자야비라지자에게 출가한 후 열심히 수행하여 스승의 경지에 도달했으나 마음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후일을 약속한 후 고향에 돌아와 지내고 있었지요. 사리불은 그뒤 길을 가는 도중에 한 수행자 마승馬勝비구를 만나게 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당신의 모습은 평화롭고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스승님은 누구이시며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하고 간청했어요. 그 비구는 「나는 위대한 사문이신 석존께 출가했습니다만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법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하고 겸손해 하는 모습에 감동한 사리불은 한 구절만이라도 듣고 싶다고 하였지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발생하고 인연에 의하여 사라진다. 諸法從緣生 諸法從緣滅
우리 스승이신 붓다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가르치신다오. 我佛大沙門 常作如是說

수행승이 읊어준 시를 들은 사리불은 시원한 감동을 받았지요. 이를 계기로 사리불과 목건련은 산자야의 제자 2백 5십

명과 함께 죽림정사의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합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이 두 친구는 나의 이대二大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대신하여 설법하는 사리불을 가리켜 「무궁한 지혜로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은 사리불 비구가 제일이다.」고 하셨습니다.

3) 저희들도 이처럼 반드시 부처님 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수기授記는 부처님께 받고나서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보살도를 닦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부처님께 올리었고, 하늘 음악과 하늘 꽃이 비오듯 내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3-8.

“이 때에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와 우바새 우바이와, 모든 대중이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서 아نوات타삼악삼보디의 수기 받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떨 듯이 기뻐하며 각각 몸에 입었던 옷을 벗어서 부처님께 공양하며, 석제환인釋帝桓因과 범천왕 등은 수 없는 천자天子와 함께 또한 하늘의 묘한 옷과 하늘의 만다라 꽃과 큰 만다라 꽃 등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니, — 여러 가지 하늘 꽃이 비 오듯 하였다.”

얼마나 기뻐하면 옷을 벗어 기쁨을 표시했을까요? 마치 요즘의 열린 음악회나 콘서트에서 열광하는 팬들과 노래하는 가수나 배우들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처럼 다른 이가 성불의 수기를 받는 장면에서 자신의 일처럼 아낌없는 기립박수를 칠 수 있을까요! 다소 과장된 표현은 아닐까요!가 아닙니다. 다음 계송을 봅시다.

3-9.

오늘 이 법 말씀하니 우리들도 따라 기뻐 世尊說是法하시니 我等皆隨喜니
지혜 큰 사리불이 수기를 받사오니, 大智舍利弗이 今得受尊記하시니

3-10.

저희들도 그와 같이 오는 세상 성불하여 我等亦如是하야 必當得作佛하와
세간에서 높고 높은 세존이 되오리다. 於一切世間에 最尊無有上이니다

사리불도 우리와 같은 중생이었으므로 나도 머지않아 성불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리불의 수기에서부터 제13 권지품勸持品에서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소다라 비구니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수기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를테면 일불승에는 첫째, 2승과 3승이 없어지고 둘째, 익찬티카는 성불 못한다와 셋째, 여인은 성불 못한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승불교의 교리가 효력을 잃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4) 부처님과 사리불의 과거인연

상수제자 사리불은 처음에는 세존의 제자가 아니었죠. 여기서 전생수행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3-11.

“내가 옛날 2만억 부처님 계신 데서 위없는 도를 위하여 너를 교화하였고, 너도 또한 오랜 세월을 두고 나를 따라 배웠으니, 내가 방편으로써 너를 인도하였으므로 내 법 가운데 나게 되었느니라. 사리불아, 예전에 내가 너를 가르쳐 부처님의 도에 뜻을 두게 하였는데 네가 지금 잊어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멀도를 얻었노라」하기에,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본래 원하고 행하던 도를 기억케 하기 위하여 성문들에게 이 대승경을 말하노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요, 보살을 교화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이니라.

본래 사리불존자는 처음 외도에게 출가하여 수행을 했었지요. 그런데 세존의 말씀에는 과거 전생에 오래도록 당신의 제자였고 함께 수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존은 흰히 알고 사리불은 잊었을까요! 완전한 열반에 이르지 못한 까닭입니다. 제1 서품에서 구명보살과 묘광보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수의 전신인 묘광보살은 흰히 아는 세계를 미륵의 전신인 구명보살은 함께 있었으면서 깜깜 절벽이었지요.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지 못한 까닭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토마을은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끌어집니다.
환우들은 자원봉사자의 미소에 기운을 내고 정토마을의 구석구석은 당신의 동참으로 밝혀집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시간단위 자원봉사

09:00~14:00, 13:00~17:00, 17:00~21:00

| 일일 자원봉사

10:00~17:00(주간), 20:00~익일 05:00(야간)

| 주간 자원봉사

주 1회

| 장기 자원봉사

도움분야 비품관리, 병원 실내외 청소, 환우목욕, 방문객안내
병원 안내, 도서 나눔봉사, 환우 수발라운딩, 환우들과 함께
산책, 치유방송 지원 봉사, 행정지원 봉사, 화훼(정원수 관리)

재능기부 임상기도, 임종 돌봄(교육 이수자 가능), 집단·개인
공연(음악 악기 춤 등), 아로마 치료, 이·미용, 물리치료분야
(카이로프랙틱, 온열 치료, 갈바릭 치료), 의사선생님주말자원
봉사(양·한방, 치과, 이비인후과)



장 소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아정길 216-39
전 화 ☎ 052)255-8408 담당자 김은구 사회복지사



옥저 나눔회

- 이명채 회장

매월 4주차(일) 회원님들께서 정기적으로 봉사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후원금 매월 1회 50만원정도 후원물품 하고계십니다.
 병원 주변 환경정비, 환우말뭇, 휠체어 이동, 식사보조 등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정토마을자재용병원



즐거운 청렴!

청렴동아리 청락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청렴동호회

청락

- 이정금 회장

울산광역시연구정보원

매월 2주차(토) 회원님들께서 정기적으로 봉사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병원 미세먼지청소, 말벗, 식사보조, 휠체어이동, 산책 등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자재요양병원에 엄마를 모시며

| 보호자 유경희 님

엄마~~"미야 왔데이~~"하며 병실로 들어서는데 나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다. 올 엄마의 반응은 여러 가지이다. 목소리를 듣고 눈을 벌서부터 동그랗게 뜰 때도 있고 들은 체 만 체하는 표정도 있다. 컨디션 좋은날은 대답도 곧잘 하시곤 한다.

어느덧 올 엄마가 병환으로 누우신지 6년째다. 74세에 허리디스크 수술 후 결국엔 회복하시지 못하셨다. 처음엔 걸음이 다 그런 줄 알고 조금씩 나아지려니 지팡이에 의지해 조금씩 걸으시다 회복이 되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슈퍼파키슨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 진단과 동시에 급격히 건강상태가 모두 나빠졌다. 점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 걸음도 멈추었고 식사도 밥에서, 죽으로, 미음으로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체력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몇 번의 고비후 가족들과 상의해서 관으로 삽입해 경관식으로 바꾸었다. 엄마 본인께서 병원가면 죽는 줄 아는 분이래 완강히 거부해서 집에서 수년을 버틸 때로 버텼다. 엄마를 모시며 티격태격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다. 가장 힘들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미안한 맘이 크다.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넘긴 후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지금은 여기 자재병원 중환자실에 모신지 4개월째다. 중환자실에 근무하시는 수간호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은 한 순간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하다. 정말 잘 하시는 것 같다 요양보호사 여사님들도 가려운데 굽어주듯 정말 잘하신다.

어쩌면 이분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보다 더 잘 알고 잘 하시는 것 같다. 모두들 정말 고생하시고 고마우신 분들이다. 지금은 겨우 알아보시는 듯하지만 힘들어도 티격태격 하던 그때가 그렇다.

햇볕 좋은날 자재병원 마당으로 엄마를 모시고 나온다. 주변 환경이 참 좋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공기도 맑다. 주변에 늘 꽃들이 피어있다. 엄마가 건강하실 때 항상 절에도 다니시고 꽃 가꾸기를 좋아해서 모든 게 엄마한테는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딱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을 돌며 꽃 설명도 하고 옆에서 재잘재잘 한다. 표현은 딱히 안 해도 속으로는 분명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끝으로 ~ 항상 고생하시는 간호사 선생님과 요양보호사 여사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파이팅"~~~~~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인도 보드가야 의료봉사와 부탄 성지순례



인도 불가촉천민을 위한 희망의 씨앗

인도 의료봉사와 보드가야 대탐 기도와 &

A팀

인도 보드가야 의료봉사

2017년 11월 27일 ~ 12월 4일 (6박 8일)

B팀

부탄 불교성지순례

2017년 11월 24일 ~ 12월 3일 (8박 10일)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서는 인도 보드가야 달리트(불가촉 천민)을 위한 의료봉사에 함께 할 자원봉사자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깊은 차별속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인도 불가촉천민의 마음과 상처를 자비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실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 봉사지역 및 대상 : 인도 보드가야 주변 불가촉 천민 3,000 여명
- ❖ 봉사자 모집 :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스님자원봉사자

※ 의료봉사와 성지순례를 같이 갑니다.
※ 의료물품 후원 받습니다



정토마을에서는 스리랑카 미얀마에 이어 부탄으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히말라야산맥으로 둘러쌓인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무공해 청정지역이며 곱이낙원이 부탄입니다. 살아서 꼭한번은 기뻐야할곳,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과 마음여행을 원하는 분들을 초대하오니 신청바랍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하오니 서둘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지순례 지역 : 팀포, 푸나카, 탁상사원 등 부탄 고대 불교 사원
- ❖ 성지순례 후 인도 보드가야로 이동 보드가야 단체기도 및 순례 예정

의료봉사 담당자 : 김 동 수 팀장 010-5143-5006

성지순례 담당자 : 김 현 아 팀장 010-3879-7953

문의 및 접수 : 정토마을 사무국 052-255-8588

안 내 : 마은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 공짜에 건강은 덤! 에헤라 디요~~

| 자원봉사자 청산거사 님

살림에 조금 더 보태보고자 투잡을 하며 열심히 앞만 보고 2년여의 시간을 달렸습니다.

일이란 아니 돈이란 게 맘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으련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상태에서 2년 정도 쉬었던 수영강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무료사용?”

저는 무료라는 이 한마디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

장기기증 서약자의 경우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무료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가한 낮시간에 맞춰 등록을 하고 수영장을 갔습니다.

오후3시라는 시간 때문인지 우리 강습반엔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임하신 회장님을 비롯해서 스님과 목사님, 지난겨울 자전거 사고로 무릎에 철심은 박은 분, 암투병중 수술을 하신 분 등등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하는 분도 많았지만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 운동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운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요즘, 이분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거나 지켜서 죽을 때 하나의 장기라도 기증하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하고 계신 장기기증서약자라는 사실에 감탄과 존경의 마음으로 다시한번 놀랐습니다.

이 세월 저는 무엇을 했나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한평생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도 죽음 앞에서 하나의 희망을 남기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이것이 삶의 의미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음 먹습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나의건강의 힘으로 희망을 갖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봉사자로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오늘도 작은 마음이지만 봉사로서 사랑을 담아 전하고자 정토마을로 봉사하러 갑니다.

어디서 힘겹게 고군분토하시는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봉사도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장기기증이라는 작은 희망을 나눠주고 가실 수 있다는 건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정토마을 청년봉사자로 10여년의 인연지기 청산 올림)

•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생, 노, 병, 사는 모두 환영(幻影)일 뿐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곳 정토마을에서 빛나는 화엄세계로 나타난다.
 능행스님은 그 환영(幻影)이 환영이 아닌 즉심즉불(卽心卽佛) - 니르바나
 (Nirvana)의 세계라고 우리들을 일깨운다.
 그 불국정토, 스님의 한없는 사랑이 빛이 되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세상을 밝혀주고 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억겁(億劫), 온 우주에 나투신 부처이시여!
 함장하여 경배합니다. 빛이 가득하니 사랑이 끝이 없어라...

- 강찬모 화백 서평



권대용 시인

조선일보 신춘문에 시부문 <양수리에서>로 등단.

권대용 시인은 달을 그리고 달시를 쓰는 달시인으로 알려져있으며 매해 달시화전과 달콘서트를 개최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

중국 북경예술구798 라이브 탱크에서 한중 달시화전 및 북콘서트 개최(한국 출판진흥원 주최) 일본 진보초 <책거리>에서 달시화전 및 달콘서트 개최(일본 쿠온 출판사 일본 고서점 페스티벌 주최) 등 전시회를 가지며 활동 중이다.

시집 <당나귀의 꿈> <조금 쓸쓸했던 생의 한 때> 장편동화 <돼지저금통 속의 부처님>산문집 <그리운 것은 모두 달에 있다> 등의 저서가 있다.



작가 능행스님

능행스님은 20년간 수천명의 죽음을 배움해오면서 온 몸으로 맞닥뜨려온 삶과 죽음에 대한 진실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돌봄가의 시선으로 담아두었다. 그 모습들이 절박하고 아련하지만 죽음과 맞닿은 사람들의 고통스런 모습은 우리네 모습이며 사람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능행스님은 현재 한국 불교호스피스협회 협회장, 한국 완화의료학회 부회장,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병원장, 정토마을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장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불교 임상 기도집>과 산문집인<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계>, <이순간>, <숨> 등이 있다.



강찬모 화백

채운 강 찬모는 1949년 논산 채운(彩雲)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채색화를 전공하였다 50여 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기천문(氣天門)을 30년째 수련하고 있다.

2004년 부처님의 성지와 설산 순례 후 지금까지 부처님의 고향, 히말라야 설산을 주제로 그리고 있다.

수상 : 2013 프랑스 보가드성 박물관 살롱전(since1922) 금상수상

스위스Gstaad, 뉴욕lilac, 프랑스MBfactory갤러리 등 전속초대전과 해외많은 전람회를 통하여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

정도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정도가족

3월	김기태	정재창	김태웅	변혜경	윤혜진	조원희	남호윤	김송자	허균노	이상희	이춘엽	김보민	김귀남
이예수	천수경	김은진	송상훈	한명희	장용희	김용섭	차선철						
4월	남호균	박영애	정현영	범해님	호연스님	김영주	박규하	박진서	전재호	남경현	김동수	이명희	선일스님
허태순	제금안	기승정공(주)	박영순	이은숙	김지훈	김정환	생헬스(주)	손상호	신지원	박상원	박기연	이옥선	원겸스님
문동순	문동민	안민우	김세환	조미영	송 옥	정계자	손선희						
5월	안여정	김순이	강원기	장익수	전미숙	조미건	정말선	정금희	이후자	오성오	양재호	김종목	강문자
한철우	이효정	김광연	박영우	김명숙	최효진	이미혜	신명희						
6월	김재춘	민성기	김대수	황호철	박춘애	여지모	오정희	양명숙	신지원	이부선	이영희	조재욱	김옥숙
박신주	박덕승	손삼경	박주영	이미라	장병철	오성환	김정순	정길모	이선우				

108병상

16년 12월	박현숙	배현경	김유현	정혜진	김선희	이선명	강유복	심재석	심상보				
3월	손 영	이귀례	이순열	이정숙	이영선	김정현	최애자	고진호	김상호	이연심	이은숙	인호스님	김덕자
박민준	배수빈	김수연	장광대	최영원	오승원	정주윤	김경희	김영미	황병욱	김정숙	오승원		
4월	남경현	이복기	김진철	박옥련	김재희	기승공업(주)	기승정공(주)	강복림	박영희	원겸스님	임정숙	양재호	박선화
배영환													
5월	장익수	강원기	김은숙	민승기	이정아	이정림	이정진	남점선	남궁더은	이대겸	김민정	박철민	윤미숙
조점남	김윤필	박정국	박정미	정순희									
6월	여지모	최보영	이종청										

일시후원

3월	조용훈	장지흥영가	조미선	경남대학교	김봉삼				
4월	이보화	양재호	이은성	홍란기					
5월	여운포	원종사승복	홍소영	민성기	허 상	부서관음회			
6월	가계상사회	김봉삼	정신호	김민성	최현우				

건립후원

3월	길홍제	길홍필	원충녀	배정숙
4월	기승공업(주)	이영희		
5월	조은정			

의약품후원

3월	울산금강회	조정미영가	김병갑	법동회	이화목	이한중	이나경	이찬진	윤문자	송금자	임문선	임규일	지정사저인
김정옥	박상일	범해님	조숙희	조상미	김진철	차수영	피용환	이말순	김성숙	고경화			
4월	이수일	오민철	이순자	김보령									
5월	김혜숙												
6월	정미숙	이채경	범해님	좋은일	해광스님	김성수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

정도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땅1평

3월	이소련	양부자	황유철	박정순	장광대	김지원			
김진호	강원자	최옥자							
4월	민애옥	김성숙	송연스님	신혜숙	윤범석	지문스님			
박상원	임정숙	익명(불전협)	김웅창	박순덕					
5월	여영수	이정선	여성모	여미란	전미숙	이현수			
이진동영가	조용진	조성우	이원순	김양금					
6월	김수현	수연스님	박영숙	장숙자	김경민	권복남			
최남선	김임숙	이주연	김정오	남명순					

법당불사

2월	정수남	이지예	이지영	이노순	정갑순
3월	방성민	이길원	민영애영가	송범영영가	
4월	성영민	조영주영가	김성숙	심승현	성영민
5월	국정스님	송기옥	김근홍		강신혁
6월	구본권	방윤선	효원스님	이찬진	이상교
권세진	박정호	이정은			이황휘

희망시멘트

3월	나덕형	이은경	김복래	김복남	김명호	정유진	김 훈	조재익	유현웅	박종태
5월	김윤자	한화숙	한화인							



물품 후원해 주신 분들

정토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곡물공양

3월	해광사	백정근	신성우	김병소	조금구	패랑이동센터	김봉삼
4월	조금구	장영순	이경민	김정희	이미진	여덕자	
5월	김정숙	해광사					
6월	강순진	조금구	신성우	지하님			

꽃공양

3월	박찬익	이지서
4월	김정옥	
5월	김용환	

과일공양

4월	권민지	선일스님	범해스님	박영희	김민수	천득희
5월	김제준	김명주	무명			
6월	박영희	남정애	권문희	교정치료교	윤정숙	

대중공양

4월	고경화		
5월	박명자	장명자	만옥스님

떡공양

3월	창제스님	광양등보살					
4월	도안스님	안국향	창제스님	남궁은숙	김주성	손정녀	이미진
이혜진	정춘애						
5월	창제스님	이주비					

야채공양

3월	이종남	이경진	이말순		
4월	이말순	원경스님	화정스님	이지서	
5월	이말순	이정희	정승민	장년회	
6월	남정애	김경숙	문경미	권경순	남명순

기타(양념류, 생필품, 가공식품)

3월	해원스님	김정순	노기동	김선희	현불회	최정석	도운스님	문경미	이지서	울산선우회	임길분	안미주	
4월	포항관음사	채원자	현불회	정은희	노기동	박영희	이명자	오세준	김정희	이미진	김주성	울산선우회	
5월	진말숙	이지서	포항관음사	도원스님	신원조	김순이	허영철	성후남	이영숙	손삼경	이종도	홍란기	곽미경
이재은	정청례	조인숙	공민표	현불회	노효영	최세진	해광사	울산선우회					
6월	현불회	정청례	조인숙	최세진	최완식	증진스님	임선주	노기동	울산선우회				

행사 공양금외 물품후원

1월	곽미경(38기)	박연주(40기)	양정윤(26기)	이단희(43기)	천효정(43기)
최세진(27기)	경원스님(43기)	황다원(36기)	최정순(37기)	42기연지회	현담스님(44기)
이상필(39기)	오복순(일반)	능인스님(24기)	41기연지회	익명	상호스님(43기)
43기연지회	길장스님(43기)				
3월	강영목				

의약품후원

3월	권순선	김명선	이지서	정정화	서광희	지하님
6월	유욱재					

불기보시

4월	오세준	김정희	이미진	김주성									
5월	정은희	이혜진	이현지	이현실	최인선	곽미경	최완식	김점숙	박영애	연화심	최민식	운곡	오세진

공덕의 향

미국 텍사스저비살션모임 무명 송법인행

법보시

이미진 이종태 최경숙 변강임 신동희 김복남

정토마을 하늘가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봄 네충신타스님께서 오시어 청주 정토마을과 언양자재병원에서 약사여래 가피기도와 화공법회를 봉행하여 주셨고, 정토마을 후원가족들의 참여로 모든 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기에 모든분들께 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월 부처님오신 날 먼 길 방문하시어 정토마을에 오색등도 달아주시고 국수도 맛있게 드셔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요즘은 날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자원 봉사자분들께서 여념 없이 찾아와 도와주시니 정토마을 자재병원과 큰 식당 그리고 정원가꾸기가 가능합니다.
정토마을 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이 삼복더위에 봉사해 주시며 땀 흘리시는 것을 볼 때 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자재병원에서 환우들을 위한 영적 돌봄에 마음을 쏟아주시는 영적 돌봄가 이신 보디사트바들께도 깊은 사랑을 보내며 매달 4번째 주마다 인도 티벳 최고의 성취자들이신 계취 스님들 6분들께서 오시어 법화경 제4차 천일기도 밀교의식을 10시간동안 집전하여 주시면서 천일기도 동참하신 여러분의 행운과 성취를 기원드립니다. 그때마다 참으로 고맙고 오직 감사한 마음 하나뿐입니다. 법화경 천일기도 밀교의식이 있는 매월 4번째 주에 많은 분들이 오시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지구가족 전체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보고 싶네요.

칠월백중기도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 후원자분들의 선망조상님 극락왕생을 발원 드립니다.

정토마을 마하보디 교육원에서 7월 30일부터 6박7일간 진행되는 45차 생사의강에
그동안 교육을 받았던 선배님들이 전국각지에서 자원봉사를 오십니다.

그 옛날 추억을 그리며 먼 길 다녀가 주시는 길에 저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내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저는 참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꼭 저보고 가주세요 선배님들 ...

법화경독송 21일 장좌기도 봉행 안내

법화경 장좌기도는 정토마을 승가공동체 스님들께서 모두 합심하여 21일 동안 매일 24시간 법화경을 독송하는 기도로 "삼재액난소멸, 선망부모천도"를 위한 기도 대법회를 내년(2018년)이면 8년째 봉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태민안과 선망부모의 왕생극락 그리고 나의 가족들의 평온한 삶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오니 이 글을 만나는 인연으로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1일 기도 회향은 정월 대보름 동해바다가 시작되는 감포 앞바다에서 방생법회로 봉행하며, 나라 안팎이 어지럽고, 전 세계가 삼재팔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때 우리가 마음을 크게 내어 지구가족들의 안녕과 나의 가족들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할때 인 것 같습니다.

2018년 무술년 한해를 위한 법화경 독송 21일 장좌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입재 : 2018년 02월 10일(토) / 회향 : 2018년 03월 02일(금)

설판공덕
기도비

설판재자
201만원

부설판재자
108만원

일반동참재자
10만원이상

기도접수 :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계좌안내 : 농협 351-0487-2583-23 정토마을

"선망부모와 법계의 유주무주 고향 영기를 천도"하는 백중(우란분절) 기도 안내

백중기도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효심이 지극한 목련존자의 신통력과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육도윤회의 중생을 고통에서 해탈시켜 불교의 5대 명절로 전해된 날입니다.

불제자들의 수행력과 효심으로 금생에 가피를 청합니다.

기도입재일 : 2017년 7월 16일 오전 10시 / 기도회향일 : 2017년 9월 5일 오전 10시

기도동참 : 50,000원 접수문의 : 사무국 052-255-8588

진신사리 봉안 (6차) 백일기도

2017년 7월 30일(일) 5차 회향과 함께 6차 입재 ~ 2017년 11월 5일(일) 회향

정토마을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진신사리 봉안 6차, 백일기도 입재, 법회를 봉행합니다. 기도공덕이 원만히 성취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향유하시길 서원합니다. 석가세존의 진신사리가 현존해 계신 정토마을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를 매일 500독씩 하며 각자의 염원을 담아 기도를 이어갑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불성의 종자를 잘 발아시켜 보시길 서원합니다.

재원환자 대상 마하치유 방송 및 프로그램 재능 나눔 소식

주최 : 마하치유방송실
 담당: 치유 코디네이터 이지혜

본 병원에서는 재능 나눔 봉사자들을 모시고 재원환자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및 공연 관람을 통해 삶에 대한 애착과 존재감을 도려하며, 가족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손재선이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환우와 직원의 심신건강에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동화, 시, 책 등에서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건져 올린 아름다운 이야기를 방송으로 전한다.

단체명 | 영적돌봄연구실 영적돌봄가 워드팀 손재선
일 시 | 2017년 12월 8일 ~ 현. 매 주 금요일



놀이마당 '하모니카는 추억을 타고'

시니어 하모니카 연주단은 언양 서부노인복지회관 하모니카 수강생들이 모여 결성한 재능기부 봉사 동아리다. 하모니카 연주로 추억과 행복을 전한다. 잔잔한 하모니카 연주로 삶의 고단함을 어루어 만지고, 때로는 신나는 추억의 가요 연주로 환우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이 될 수 있는 음악여행 시간을 마련한다.

단체명 | 서부노인복지회관 시니어 하모니카 연주단
일 시 | 2017년 6월 8일 목요일



원예치유

식물을 가지고 있는 초록빛은 단지 예쁘고 아름답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 마음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심어주고 실제로 맥박도 느려지게 한다. 현재 원예치유는 치매노인, 우울증, 강박증 등의 정신질환을 완화시키고 환자의 심리적 정서와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단체명 | 다화회 협회 이현숙 선생님 외
일 시 | 2017년 6월 9일 금요일



동작표현예술치유

안전한 도구인 자신의 몸짓을 통해 자신의 욕구들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수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신 속 여러 차원의 합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적을 둔다.

단체명 | 타말파 서혜인 선생님 외
일 시 | 2017년 6월 22일 토요일

2기 Soul Mother 개강

지난 4월 2일, 2기 Soul Mother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영적돌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련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인 Soul Mother 수업에 19명의 수련생이 함께 했으며, 11월 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달 수업이 진행됩니다.



제 8기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지난 4월 12일, 2박 3일 일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 30점 인증과정인 '제 8기 승려연수 불교 호스피스 영적돌봄'을 실시하였다. 총 19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21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교육을 통한 영적돌봄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AHABODHI EDUCATION CENTER

재단직원교육

6월에는 총 3회에 걸쳐 재단직원교육이 있었습니다. 6월 1일에는 재단이사장이신 능행스님께서 '공동체이념교육'을, 6월 2일에는 김재춘 가치 혼합경영연구소장께서 '주면서 복받는 최고의 방법(모금교육)'을, 6월 21일에는 자재요양병원 영적돌봄연구실장이신 능인스님께서 '호스피스 영적돌봄'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5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워크숍

6월 18일, 마하보디교육원 3층 강의실에서는 45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워크숍이 실시되었습니다. 교육스텝, 봉사자가 함께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교육기간 내 주의사항, 봉사자 VMS가입안내, 후원비 및 물품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되었습니다.



2017 여름방학 공개 워크숍 마음과학과 SATI 수행

7월 15일~16일 1박 2일의 과정(총 16시간)으로 2017 여름방학 공개 워크숍 <마음과학과 SATI 수행>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피곤한 마음에 휴식을 취하고, 자기치유 및 회복능력을 계발하여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준 프로그램으로, 붓다팔라스님께서 지도해주셨습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석사·전문가 기말세미나

지난 6월 24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2017학년도 1학기 기말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5명의 석사·생명교육 전문가과정 재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AHABODHI MEDITATION PSYCHOLOGY GRADUATE SCHOOL

파랑지역아동센터 명상수업

6월 23일, 파랑지역아동센터 명상수업이 교학년 6회, 저학년 4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월 2회에 걸쳐 진행되는 명상수업은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를 지원하고,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도법사이신 도우스님께서 교학년 6명, 저학년 5명의 학생들을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제2회 교사 소진예방 연수교육 자기계발과 정신건강을 위한 자각명상

7월 25일~26일, 제2회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자기계발과 정신건강을 위한 자각명상)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기부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의 사회공헌사업으로서 교원의 심신 에너지 소진예방과 자기치유 및 회복능력을 계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학생 생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2017학년도(후기) 생명교육 전문가과정 신입생 모집

생명교육 전문가과정은

윤리학, 보건학, 의학, 심리학, 상담학, 종교학, 법학 등의 제반 학문의 실제적인 연구와 교육을 결합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윤리 전문가 및 생명교육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원서접수 : 7월 3일(월) ~ 8월 25일(금) 17:00까지

지원자격 : 제한없음(의료, 철학, 교육, 사회복지 전공자 우대)

개강일정 : 2017년 9월 2일(토) / 매주 토요일 수업(09:00~17:00)

입학문의 교학처 행정실 T.(052)255-8521,8523 F.(052)264-0209 E. 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44908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임상기도, 임종의식 집중수련

교육기간 : 2017년 10월 22일(일)~10월 26일(목) (4박 5일)

교육대상 : 승려(승려연수대상 수행자 포함)

교육정원 : 40명(선착순 마감)

교육비 : 60만원(학인스님 20% 할인)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증명사진(3x4) 1매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접수문의 : TEL 052)255-8522, 8524 FAX 052)264-0209

E-mail mahabodhi@daum.net www.mahaedu.org 통합검색 마하보디교육원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교육원

정토마을 모연문



정토마을은 붓다의 가르침을 토대로 공존을 통해,
함께 꿈꾸는 공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사(生死)의 질적 향상에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후 원 금 (동참금)	계 좌 번 호	비 고
108병상 후원 (호스피스센터건립)	1,080,000원 (분납가능)	농협 815039-55-003185 (재)정토사관자재회	(분납) 3만원:36개월
진신사리봉안 및 삼천불 조성	1,080,000원 (분납가능)	농협 351-0487-2570-73 정토마을 국민 701401-01-202462 (재)정토사관자재회	5만4천원:20개월 10만8천원:10개월
법화경 천일기도	매월 3만원	농협 401131-51-081662 (재)정토사관자재회	(분납) 3만원:36개월 5만4천원:20개월 10만8천원:10개월
한생명후원	매월 1만원 이상 후원	부산 101-2002-6325-04 (재)정토사관자재회 농협 401131-51-080245 (재)정토사관자재회	
땅 한 평 공양불사	30만원	농협 351-0487-2570-73 정토마을 국민 701401-01-202462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전화 : 052)255-8588 팩스 : 052)254-2347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접수/입원/퇴원

Healing is Loving

완화의료중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 전문의료 서비스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 양 · 한방 협진진료

양방특수요법 - 항암면역증강요법, 미술토주사, 메가비타요법, 마이어스 칵테일 주사 등
한방요법 - 한방 침 · 뜸 · 부항요법, 전침, 탕약치료, 약재요법 등

| 특화치유 서비스

예술융합치유

음악, 미술, 요가, 춤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심신 치유와 자기 성장을 만들어 가는 자기융합의 행복한 과정 경험

임상전문 상담치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 조절과 적극적인 영적 돌봄을 통한 치유, 임종기도와 의식을 통한 편안한 여정으로의 동행

| 층별안내

- 1F** 완화의료(호스피스)병동
양 · 한방 진료실, 집중관리실, F · G실, 입원상담실, 원무과, 공용 목욕실
- 2F** 재활 · 요양병동
마하치유방송실, 휴게실, 탕비실, 영적돌봄연구실, 공용 목욕실
- 3F** 승가병동
한방요법실, 물리치료실, 사회복지실, 영양실, 힐링푸드식당, 차담실, 공용 목욕실
- B1F** 임상병리실, 약국, 바이룸, 봉사자실, 직원휴게실, 교육장, 한방 약제실, 탕전실

| 진료안내

외래진료 : 09:00-18:00
입원상담 : 052)255-8400
(월-금요일, 주말 공휴일 휴무)

| 입원대상자

완화의료(호스피스)대상자,
암환자(초기, 진행, 말기) 중풍 · 노인 · 치매 만성질환 ·
수술 후 회복기관에 있는 환자

정토마을 석가세존 진신치아사리 봉안 보궁 불사

삼천불 모연불사 진행 상황 안내



진신사리 봉안, 보궁 불사와 삼천불 봉안, 법당 대작불사 모연, 진행사항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환우와 그 가족들과 정토마을은 찾은 신도님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의지 처를 삼고 위로와 위안을 받을 법당불사가 시급하여 불사를 서원하고 모연한지 3년이 흘렀습니다. 아미타불은 주불로 모시고 삼천불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을 조성하는 대작불사에 불자님 한분 한분의 뜻깊은 서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작불사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건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주와 수차례 협의하여 온바 무리한 땅값 요구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땅 1평 공양불사를 서원하여 천여 명이 동참을 해 주신 결과 2016년 12월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2월 말에 부족한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올해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발 빠른 법당불사가 진행되어 감을 알려드리며 모든 일들이 불보살님과 화엄성중의 가피라 여겨지며 그동안 각각의 서원을 담아 원불을 모셔주시고 땅 1평 공양불사에 동참해 주신 모든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입니다. 무주의 복전을 일구신 공덕으로 모든 생애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합니다.

도량이 청정하면 어떠한 장애도 없으며 화엄성중의 옹호하심으로 만 가지 일이 성취된다 하였습니다. 정초 장좌 21일 기도와 법화경 천일기도, 사리각 1,000일 다라니 기도로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영원한 의지 처인 정토마을 대작불사를 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연 자를 기다리는 원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서원을 담아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약사여래불을 원에 따라 모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불을 모시고 법당불사에 동참해주신 700여분들, 부처님 형상 조성한 공덕은 수승하여 죽어서도 천안을 얻고 삼악도를 면하고 천상에 태어나며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그 이름 또한 온 세상에 두루 퍼지니 이는 부처님 형상 만든 복이라 합니다.

2017년 8월 삼천불전 불사 모연 상황

주불 아미타불 동참자 : 31건 500만원 이상 삼존불 : 3건 가족 2,000만원
관세음보살원불 : 303건 : 108만원 지장보살 : 113건 : 108만원 약사여래 : 104건 : 108만원
땅 1평 공양불사 : 803건. 땅 1평 : 30만원 일반 동참 : 167건 : 10만 원 이상

법당 내에 원불배치 도면이 확정되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가족끼리 나란히 모시기를 원하시면 미리 신청해 주시어 자리를 배정 받으셔야 합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1-0487-2570-73 정토마을 문의 : (052)255-8586(화주 평등각)

진신사리 봉안 백일기도 (6차) 봉행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정토마을에 모시고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부처님의 화현으로 중생의 고통과 업장을
소멸하고 선근공덕을 증장시키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을 청하는
천수다라니 500독 기도정진에 초대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매 순간,
불은 가득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중생 모두를 위해 다리니를 독송하라.
중생들에게 귀로 듣게 해 깨달음의 인연을 지어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입으로 빠르게 다리니를 외게 하되 소리소리마다 끊이지 않게 하면 금생에 성불할 수 있다.”

입 재 2017년 7월 30일(일) (음력-불기 2561년 6월 8일) 오전 10시
회 향 2017년 11월 5일(일) (음력-불기 2561년 9월 17일) 오전 10시

친견법회 백일기도 회향 일에 맞추어 진신사리 친견법회가 봉행됩니다.

장 소 정토마을 진신사리봉안처
동 참 금 30만원(분납 가능)
계좌번호 농협 351-0487-2583-23 정토마을
문 의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딱돌[bTags g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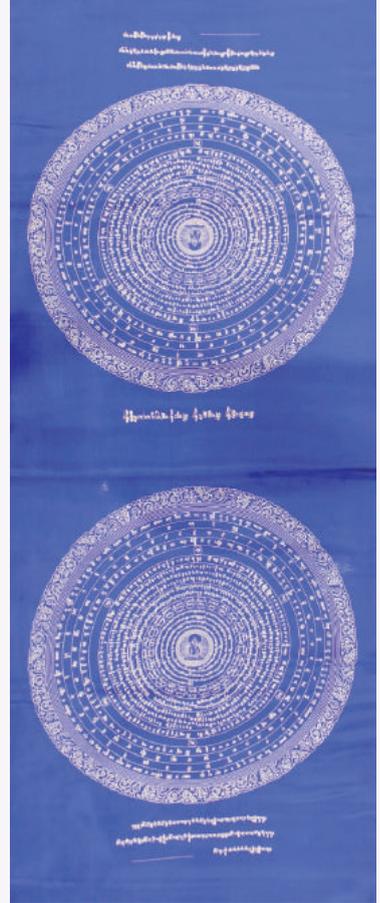
**이 진언 만다라를 몸에 걸침으로써
오온이 자연해탈 됩니다.**

악업이 치성하고 업이 무거운 사람도 선하고 착하여 업이 맑고 가벼운 사람도 모두가 죽어갈 때 이 다라니를 어깨에 걸치게 되면 의식(영혼)은 밝은 빛으로 해탈하여 극락세계 연꽃 속에 태어난다. 이승에서 마지막 숨이 남아 있을 때 딱돌을 어깨에 걸치기만 하더라도 오온(육체)으로부터 집착과 고통을 가볍게 여의고 해탈을 한다.

이것을 만나기는 진실로 어렵고, 만나도 마음에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나는 자는 누구든 환희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공손히 받아 지니도록 하라.

임종 시에도 이것을 몸에서 분리시키지 말라. [다비 시에도 이것을 몸에서 분리시키지 말라.] 이것을 보고, 듣고,憶념하고, 접촉함을 통해서 해탈하게 되는 딱돌을 몸에 걸치므로 악업과 죄장이 남김없이 정화되고, 살덩이의 육신이 무지개의 몸으로 바뀌게 하소서! (사자의 서 중에서) 내가 이 육신을 벗어던질 때 탐욕과 분노, 애착의 덩쿨을 모두 끊고, 마음을 조작 없는 본래상태에 안치하여 죽음을 해탈의 길로 삼도록 가지하소서! 불보살님의 지극한 가피의 힘과 법성의 본질이 본래로 청정함과, 또한 나의 정결한 의지의 힘으로 발원한 그대로 성취되게 하소서!

1200년 전 티베트 성자 빠드마삼바바께서 구술한 비방을 여제자 에시초깁이 글자로 기록하여 숨겨둔 경전이 '사자의 서'다. 빠드마삼바바께서는 바르도퇴돌(사자의 서)을 구술 하면서 말세의 불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다. 만약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듣고서 단지 샅된 소견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해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극히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라. 이것은 일체의 정수만을 가려 모은 제호와 같다. 그러므로 이 바르도퇴돌(사자의 서)의 가르침을 단지 듣는 것만으로 해탈하고, 죽어 갈 때 어깨에 걸치는 것만으로 해탈한다.



108병상 기부 동참하기



석가여래 진신사리의 가피가 현현하는 정토마을 도량에서 법화경 독송 공덕으로 당신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며 병상기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병상을 기부한 공덕으로 이 삶이 다하도록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병상에 놓지 않게 하소서.

| 108병상 기부금은 |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호스피스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적합한 병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정토마을은 20년간 실천해온 호스피스완화의료보다 더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108병상 기부금은 치매전문병동, 외상병동, 중환자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등으로 전문화하고 개별화된 시스템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병상모연에 당신을 초대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계좌 농협 815039-55-003185 (재)정토사관자재회

접수방법 전화, 방문, 홈페이지 접수

전 화 052-255-8588 **팩 스** 052-254-2347

방 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정토마을법인사무국

홈페이지 www.jungtoh.org



자재병원에 법당이 없어요?

땅 한 평 공양불사

후원자들의 따뜻한 가슴이 모여 오늘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환우와 보호자들이 부처님께 기대 아프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법당건립을 위해 땅 1평 공양불사를 발원합니다.

일 시 불 입금계좌 농 협 351-0487-2570-73 **정토마을**
3회 분납 입금계좌 국민은행 701401-01-202462 **(재)정토사관자재회**
전 화 052)255-8588 **팩 스** 052)254-2347 (화주: 평등각)

- 정토마을의 후원과 불사에 동참하시면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 땅 1평 공양금은 1인 30만원이며, 일시불 또는 3회 분납으로도 공양 올리실 수 있습니다.

죽음, 청춘이 묻다.



일 시 2017. 10. 14(토), 14:00 ~ 16:30

일 정 1부 - The 아름다운 사람 시상식(우수 봉사자 시상)

2부 - 죽음, 청춘이 묻다.

» 초청강연

» 청춘강연 4인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주최·주관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후 원  보건복지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행복공동체 정토마을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후원자 함께 가꾸기

‘1인 1만원 삼만 정기후원자 운동’

선한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릴레이에 함께해요.
한 사람의 후원은 한 환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사무국
Foundation Executive Office



기부금, 이렇게 쓰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기금으로 사용되며
불치병 환자를 비롯한 암환자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 기금으로 쓰입니다.

나눔동참

국민은행 713701-01-001909 / 농협 401131-51-080245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해외송금 kookmin bank seoul korea

계좌 713701-01-001909 (jungtosagwan-jajaehoe)

접수방법

전화 052-255-8588 팩스 052-254-2347

방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재)정토사관자재회

www.jungtoh.org

상세한 기부금 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